

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끄는 여의도연구소	보도자료	2006년 9월 18일	
		전화	02)2070-3300 02)2070-3323
	(재)여의도연구소 www.ydi.or.kr	팩스	02)2070-3331

여연 '포털 뉴스 무엇이 문제인가' 보고서 발표

- '여연', 포털 뉴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선택과 편집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
- 신문법·언론중재법에 해당되지 않아 언론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책 마련 촉구

○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(소장, 임태희)는 포털뉴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'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' 보고서를 발표했다.

■ 취지

지난 5.31 지방선거 당시 신문 및 방송에서는 '매구미부친 방한'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. 하지만 포털 뉴스에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연예 위주의 기사 및 '오세훈 서울시장'의 가십성 기사가 메인화면에 올랐다. 이렇게 포털 뉴스는 100여개의 언론사로부터 하루 4천 ~ 1만개의 뉴스를 공급받아 자의적 선정 및 편집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제를 형성하면서 네티심(Net心)을 이끌고 있다.

포털뉴스의 편집은 네티즌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선정적으로 제목을 고쳐 원래 의도와는 다른 기사 제목으로 바뀌고 있으며, 국민의 의식주에 밀접한 기사보다는 연예·스포츠 기사위주로 취사선택을 하고 있다. 또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정보통신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, 기사를 두고 취재행위를 하고 있지만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.

본 보고서는 이러한 포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실상 언론행위의 적절성을 검토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.

◆ [보고서 주요내용] ◆

■ 온라인미디어 현황

- 국내 인터넷 인구는 총 3,1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0%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이버 방문자수 1,250만명임. 또한 대학생들 과반수 이상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있으며 TV와 신문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
 - ☞ 네이버뉴스(470만명) 2.8 : 1 인터넷 종합일간지(168만명 - 조·중·동·한겨레)
 - ☞ 포털 메인에서 뉴스 제목만 넘겨보기 인원은 뉴스방문자의 2배로 추정

■ 문제점

- 편중된 기사 출처
 - 메인기사 분석결과 조·중·동 기사는 약 10%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반면 연합뉴스·노컷·오마이·프레시안 등 약 50% 이상 차지
 - ☞ 데일리안, 업코리아 등 정부비판적 신문의 기사는 탑 배치 없음
- 신문법·언론중재법에 접촉 받지 않음
 - 인터넷 신문법에 포털뉴스는 포함되지 않아서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음(現 정보통신법 적용)

■ 개선 방안

- 포털 뉴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
 - 포털의 높은 국민이용도 및 기술적 부분을 고려하여 당·학계·언론사·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발전방향 종합적 연구 필요
 - ☞ 포털 뉴스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최우선
 - ☞ 구글의 뉴스 선정방식 벤치마킹 필요

[연구대상]

뉴스 제목의 자의적 편집 금지, 메인 및 서브 리스트 자의적 선택 금지, 편중된 기사 출처, 뉴스제공사의 기사 원문만 보여 줌

- 포털사에 대하여 사실상 언론사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적·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 필요

[자세한 내용 여의도연구소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]

담당 : 여의도연구소 연구원 나경태

연락처 : 02-2070-3323

<여의도연구소 www.ydi.or.kr>

